



최신 판례예규

마케팅 Tax Consulting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에게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구입전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사전법령부가-404, 2019.08.28

◆ 질 의

○ 사업자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광고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법인-168, 2019.07.04

◆ 질 의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AA3공장 관련 자산(토지 및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회 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특정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쟁점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가 관련법령의 적격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였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쟁점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의 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특령§ 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18, 2019.09.25

◆ 질 의

- (질의1) 조특령§14의3①1호 및 3호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판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의결권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조특령§14의3①1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의 판단은 본인의 주식매수선택권만의 행사한 경우를 가정한 것인지 다른 주식매수선택권도 행사한 것을 가정한 것을 가정한 것인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 1호 및 3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241, 2019.09.26

◆ 질 의

- (질의1) A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제23기 사업연도가 '사업연도 시작일~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2019.4.23)'로 변경되는 경우
 -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A법인은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할 예정인바, 해산 등기 전에 제23기 사업연도(2019.3.1~2019.4.23)의 당기순이익(부동산 매각차익포함)을 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회 신

내국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납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한 것은 잔금납부일을 특정할 수 없어 1회계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 ~ 2019.4.23)'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